

A Spanish story tells of an estranged father and son. The son ran away from home. His father set out to find him. He searched for months without success. Finally, in a last desperate effort, he put an advertisement in the newspaper. It read, 'Dear Paco, meet me in front of this newspaper office at noon on Saturday. All is forgiven. I love you, Your Father.' On Saturday 800 Pacos showed up, looking for forgiveness and love from their fathers.

어떤 떨어지게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스페인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그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무 성과없이 몇달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마지막 간절한 노력으로 드디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토요일 12 시에 이 신문사 앞에서 나를 찾거라. 모든 것은 용서되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로부터"라고 썼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800 명의 파코가 그 토요일에 나타났습니다.

We all need forgiveness and love – particularly from our fathers. One psychiatrist noted that if he could convince his patients in psychiatric hospitals that their sins were forgiven, 75% of them could go home. Yet far greater is our need for forgiveness and love from our heavenly Father. And that's our focus this morning.

우리 모두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버지로부터. 한 정신과의사는 만일 그가 그의 정신과 병동에 있는 환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줄수 있다면, 그들중 70%는 집에 가도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우리들의 필요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점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주제입니다.

Our Lord's parable of the two debtors in verses 41, 42 is the centrepiece of Luke 7:36-50. ***"Two men owed money to a certain moneylender. One owed him five hundred denarii, and the other fifty. Neither of them had the money to pay him back, so he cancelled the debts of both.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This parable teaches a simple truth: Our degree of thankfulness is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our cancelled debt. Then Jesus asked Simon which debtor would love the moneylender more. The answer was obvious: The one who'd had the bigger debt cancelled. We can easily see the meaning of the parable: The greater the forgiven debt, the greater the thankfulness. Yet Simon couldn't see the application of this in his own home.

41, 42 절의 두 빚진자에 관한 하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7:36-50 절중 가장 중심된 것입니다. ***"빚진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비유는 간단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감사함의 정도는 얼마나 빚이 탕감되었지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음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느 채무자가 그 돈빌려준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답은 명백합니다: 더 큰빚을 탕감받은자.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한다는 것. 그렇지만 시몬은 이 비유가 어떻게 그의 가정에 적용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Simon had invited Jesus for dinner. The Pharisees followed strict religious practices. They zealously fasted, prayed and tithed their goods. They also sought to convert others to their ways. On occasion they ruthlessly opposed their enemies. They certainly persecuted the Lord Jesus. Yet this deeply religious Pharisee, Simon, neglected to show common courtesy to Jesus in his home.

시몬은 예수님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엄격히 종교적 실행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십일조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따르도록 열심이었습니다. 가끔 그들은 그들의 적들을 가차없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심이 깊은 바리새인, 시몬은 그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일반적 예의를 보이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When I'm invited into someone's home, I'm received with some form of greeting. Before going inside I might take off my shoes. Then, I'll probably be offered a handshake; be asked to take a seat, usually followed by, "Would you like a cup of tea?" These courtesies make us feel welcome in another person's home. Simon had invited the Lord Jesus to dinner. Jesus went in and reclined at the table. Leaning on His left arm, His bare feet would have extended away from the table. But Simon, the Pharisee, did not greet Jesus with a kiss. Nor did he wash His feet or pour scented oil on His head. Yet those were the customs of his time.

제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되었을때, 저는 어떤 형태의 인사로 맞아집니다. 집안에 들어가기전에 저는 신발을 벗을 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저는 아마도 악수를 청해받고, 앉으라고 청해지고, "차 한잔 드릴까요?"라는 말이 따라오게 되지요. 이러한 정중한 예의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집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저녁에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으로 들어가서 탁자에 기대어 앉습니다. 그의 왼팔에 몸을 기대채, 그의 맨발은 식탁에서 뻗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인사하지도 않았고 그의 발을 씻기지도 않고, 그의 머리에 오일을 붓지도 않았습디다. 그 당시에 그것이 전통이었습니다.

During the meal a woman entered. She was one who'd lived a questionable moral life. The woman no doubt knew Jesus. Maybe she'd merely intended to give Jesus a present of the *alabaster jar of perfume*. Nevertheless, she'd heard Him preach the Gospel and the burden of her sin had been washed away. Perhaps she'd heard the Lord Jesus say,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8-30) Whatever she has heard, this woman knows that her sins are forgiven. She has already come to Christ in repentance and faith.

식사중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자였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의심할것 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단순히 예수님께 '감람유'를 선물하려고 의도했었을 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태 11:28-30). 그녀가 무엇을 들었건 간에, 그 여인은 그녀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What happened next was most embarrassing for Simon. The woman couldn't control her emotions. In the presence of her Saviour, her tears began to fall. Listen to 7:38, **As she stood behind him at his feet weeping, she began to wet his feet with her tears. Then she wiped them with her hair, kissed them and poured perfume on them.** Can you picture the scene? There is Simon, the self-righteous Pharisee, ashamed at what was happening. What was this woman of questionable reputation doing in his house? Her presence troubled him deeply. His house was now unclean. And, to make things worse, she was weeping at Jesus' feet.

다음에 일어난 일은 시몬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녀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구세주 앞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38 절을 들어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장면을 상상할수 있겠습니까? 시몬, 자기 의에 강한 바리새인은 그때 벌어진 일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집에서 의심스러운 평판을 가진 이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녀의 존재는 그를 심히 혼란시켰습니다. 그의 집은 이제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앞에 흐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Simon began to see Jesus differently. Maybe, at first, he thought to have a good debate with this teacher. But now he begins to doubt Jesus. 7:39, "**If this man were a prophet, he would know who is touching him and what kind of woman she is – that she is a sinner.**" Surely this woman has made Jesus unclean.

But if he'd been with the Lord at another dinner, he'd have heard Jesus say (Matthew 9:13),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Jesus knew not only the heart of the woman, He could also see into Simon's heart. And so the Lord told Simon the parable of the moneylender and the two debtors. 시몬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선생과 훌륭한 논쟁을 하려고 생각했을것 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7:39) 틀림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른 저녁식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태 9:13).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시몬의 마음속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몬에게 이 두 빚진자와 탕감한자의 비유를 말했던 것입니다.

Both of the debtors lacked the funds to repay their debt. The remarkable thing is that the creditor cancelled the debts of both men. 7:42b, **“Now which of them will love him more?”** Jesus asked Simon. 7:43, Simon grudgingly replied, **“I suppose the one who had the bigger debt cancelled”**. Only then did he realize that the parable involved him. 7:44, **Then he [Jesus] turned toward the woman and said to Simon, “Do you see this woman?”** Of course Simon did! He'd been acutely embarrassed at what had happened. But the Lord Jesus wanted him to see her from a spiritual point of view. While Simon continued to see her as a sinner he failed to see two things. First, that she was a forgiven sinner. Second, that Simon was also a sinner in need of the Saviour.

그 두 빚진자들은 그들의 빚을 갚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채권자가 두 채무자의 빚을 삭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7:42) 라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은 마지못해 이렇게 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라”**(7:43). 그 다음 그는 그 비유가 그 스스로와 관련있음을 7:44 절에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기를 이 여자를 보느냐?”** 물론 시몬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엄청나게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그 여인을 영적 관점에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시몬이 그 여인을 죄인으로 계속 보는한, 그는 두가지 점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 그녀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두번째는 시몬도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점입니다.

The Lord Jesus was gentle with Simon. He didn't scold him, but pointe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him and the woman. 7:44-46, **“You did not give me any water for my feet, but she wet my feet with her tears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You did not give me a kiss, but this woman, from the time I entered, has not stopped kissing my feet. You did not put oil on my head, but she has poured perfume on my feet.”** Then the Lord Jesus applies what she had done to the new life that she has found in Him. 7:47-48, **“Therefore, I tell you, her many sins have been forgiven—for she loved much. But he who has been forgiven little loves little.” Then Jesus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is: Only one of them believed that God demonstrates grace toward sinners. The Pharisee had no room for God's grace in his life.

예수님은 시몬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그는 그를 꾸짖지 않았지만, 그와 그 여인과의 차이점을 꼭 짚어 가리켰습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7:44-46).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녀가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새 삶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기를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7:47-48).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오직 그들중 한명만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보이신다는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The Lord Jesus saw the woman as a forgiven sinner. Her sins were many. Now, because they've been forgiven, she loved much. The love that she showed proved that that her sins had already been forgiven. There was nothing that she could do to earn forgiveness. It wasn't the expensive gift of perfume that saved her. Nor was it the fact that she did for her Lord what Simon ought to have done. Jesus' parable taught that the two debtors' debts were cancelled without any work on their part. It's the same with regard to sin. The Lord Jesus had forgiven the woman. He'd relieved the burden of her sin. Anointing Jesus is her faith at work. And now, nothing is too much for her Lord and Saviour. The Lord asked Simon if he saw the woman. Did he really see her? By means of the parable and the contrast in the lives of Simon and the woman, Jesus implies that Simon should take a good look at his life. It was in faith that the woman came and anointed the Lord Jesus. Her love is the consequence, not the cause of her salvation. And so that Lord Jesus said to her, *go in peace*.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죄는 많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더없이 사랑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사랑은 그녀의 죄들이 이미 용서받았음을 증명하였고, 이제 그녀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구한것은 비싼 향수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시몬이 예수님께 했어야 할 마땅할 일들을 그녀가 대신 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두 빛진자의 빛이, 그들이 한 일의 어떤 부분도 없이 탕감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죄로 인한 압박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름부음은 그녀의 믿음으로 인한 행위입니다. 이제 그녀가 그녀의 하나님, 그녀의 구세주를 위해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가 그 여인을 보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녀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비유와 시몬과 그 여인의 삶의 대조를 통해, 시몬이 그의 삶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기름부은것은 그녀가 믿음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과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가서 평안하라"라고 말합니다.

There are five key lessons to learn from this parable and the surrounding story. 1. We cannot earn forgiveness for our sin. Our part is to come to Christ in repentance and faith. 2. God forgives all who repent, no matter how great the sin. 3. The greater the depth of our cancelled sin, the greater will be our love for the Lord. Yet, like this woman, we've all been forgiven much. 4. Forgiven sinners freely enter into God's presence. 5. Through faith in Christ we have peace with God. Even so, something here directly touches our lives. Compare the Pharisee with the woman. He's self-righteous, unaware of his need for the Saviour. How many of us are like him? We do good things in our family and society. We're kind and generous. It would look good to invite Jesus home for lunch for a chat. And Simon did. But we don't need Jesus to improve our reputation in the community. We need Him as our Lord and Saviour. We need Him to forgive us our sins. Because she'd been forgiven much, her response, her love for the Lord, really shines through these verses. Genuine love for Him comes only when in Jesus we experience forgiveness of sin and assurance of pardon.

이 비유와 그 주변 이야기에는 5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우리 힘으로 얻을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큰지에 관계없이, 회개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십니다. 3, 우리의 사함받은 죄가 더 클수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엄청난 용서를 받았습니다. 4, 죄사함을 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전에 자유롭게 들어갈수 있습니다. 5,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럼으로 심지어 무언가가 직접적으로 우리 삶을 만지게 됩니다. 그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구세주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의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우리중 그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선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친절하고 관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담소를 나누기위해 집으로 점심초대를 한다면 참 선해 보일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에 우리의 평판을

더 좋게 하기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죄를 사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반응, 그녀의 사랑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진심된 사랑은 오직 예수안에 우리가 죄 사함과 용서의 확신을 경험 했을때에만 오게됩니다.

The woman models for us how we should approach the Lord. In this Bible passage she holds up a mirror to our lives. Luke does not list her sins. We only know that she had lived a sinful life (7:37). The Lord Jesus doesn't condemn her previous lifestyle. Instead, He accepts her act of love. We can safely assume that she would sin no more. Her tears flowed freely at the thought of the freedom that she has found. Her tears were not from shame, but love. Because she had come to know Jesus as her Lord and Saviour, her gratitude knows no bounds. The perfume would have been expensive. But the Lord Jesus was worth every cent she spent to buy it. 7:47, ***“Her sins have been forgiven—for she loved much.”***

그 여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이 성경말씀에서 그녀는 우리 삶의 거울로 주목받아야 합니다. 누가는 그녀의 죄를 열거하지 않았습디다. 우리는 단지 그녀가 죄많은 삶을 살았었다고 알게 됩니다(7:37). 예수님은 그녀의 전에 생활방식을 판단하지 않았습디다. 반면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의 행위를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더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간주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찾은 자유함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 눈물은 수치심에서가 아닌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그녀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감사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향수는 아마 꽤 비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그것을 사기위해 모든 돈을 써버릴 가치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7:47).***

Can I ask you, ‘Do you feel like this about Jesus? Or, are you like the Pharisee?’ Much of the world is like him. Many people know about God and His Son, Jesus. They know that He died on the cross for the sins of the world. But it was not for their sins. Are you like that? “Oh!” you say. “I’m not really that bad a sinner. I’m a good, upstanding member of the community. I pay my taxes and my bills on time, I give to charity, not much, but each little bit helps. I give to the church, but not too much, because they might waste it.”Does it offend you when I speak like that? It would have offended Simon. His opinion of Jesus went down when Jesus didn't rebuke the woman. But the woman knew what the Lord had done for her. The debt of her sin, no matter how big or small had been cancelled. Out of love she did what Simon should have done, and more. She washed His feet. She greeted Him with a kiss and anointed His feet with costly perfume. Why? Because she loved Him. And now, nothing was too much for her Lord.

“여러분도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느낍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도 될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와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죄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합니까? 여러분은 아마 “아, 저는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속한 사회에 우뚝서고 있는 훌륭한 일원입니다. 저는 세금과 공과금을 제때에 내고, 기부를 하고, 그것은 많진 않지만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저는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과하지 않게 교회에 기부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때 여러분의 기분이 상합니까? 시몬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의 견해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꾸짖지 않았을때 추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죄값이 크건 작건 이미 탕감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그녀는 시몬이 해야했던 것,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입맞춤으로 그를 맞이하고 그의 발에 값비싼 향수로 부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그녀의 하나님께 과한 것은 없었습니다.

Are you like that? When you hear how someone came to saving faith in the Lord, do you weep with them? This woman would. Do you give generously to the Lord? She did. Would you even be prepared to

humiliate yourself in front of important people to declare your love for the Lord? She did. Love was her motivation, because she knew the depth of her sin and the depth of Christ's forgiveness.

But did she know that Jesus would take her place on the cross? Did she know that He would die an ugly death for her? At this time she would not. But you and I know! The Bible tells us that Christ suffered and died, but also that He rose from the dead. His victory over sin and death is complete. Sin can have no power over your life through faith in Him. Somehow, she knew that. But then she came face to face with the Lord and she faced her sin. Have you and I done that?

여러분도 이러합니까? 누군가가 예수안의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때, 여러분은 그와 함께 흐느끼니까? 이 여인은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까? 그녀는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중요한 사람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수치스러움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녀는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죄의 깊이와 예수님의 용서의 깊이를 알았음으로, 사랑이 그녀의 행동의 동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녀의 자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를 위해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당당시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그의 정복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죄는 더이상 여러분의 삶에 힘을 행사할수 없습니다. 그녀도 어떻게든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다음 그녀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었고 그녀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까?

Probably the most powerful forces at work in the universe are forgiveness and love. Simon, the Pharisee, was self-righteous. The unnamed woman was clearly a sinner. But more than that, she was now a forgiven sinner. She found new life and new love in Christ. And just as she did, so too can you and I. The beauty of the gospel is that faith in Christ brings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mine too. We might think that our sin is not as significant as the woman in Luke 7. But then we're only fooling ourselves. All sin separates us from God. We read in Romans 3:22b, 23, ***There is no difference,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That is the bad news. Paul would say much the same thing in Romans 6:23a,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Sin truly separates us from God. But there is hope for us. (Romans 6: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Here is good news for the woman in Luke 7 and for us. United to Christ by faith we have forgiveness of our sin, peace with God and eternal life.

아마도 이 세계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힘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익명의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녀는 예수 안에서 새 삶과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꼭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예수안의 믿음이 여러분과 제 죄들에 대해서도 용서를 가져온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의 죄가 누가복음 7 장에 나온 그녀의 죄만큼 크지 않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23 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읽습니다. 이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바울은 똑같은 것을 로마서 6:23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죄는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여기에 우리와 누가복음에 나온 여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할때 우리는 우리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 화평과 영생을 얻을수 있습니다.

Luke 7:49, ***The other guests began to say among themselves,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These guests ask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ne could ever ask. Who is Jesus? It's question that you and I must answer. Our future depends upon it. Only God can forgive sins. The Pharisees knew that to be true (Luke 5:21). And the Lord Jesus forgave her sins. Luke 7:48, ***Then Jesus said to her, “Your sins are forgiven.”*** Luke 7:50, ***Jesus said to the woman,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This account of the Pharisee, the woman and the Lord Jesus is one of the most beautiful in the New Testament. The

Lord Jesus had changed her life. Her love for Him was now plain for all to see as she wept before Him. But what happened to Simon the Pharisee? Did he turn to the Lord Jesus in repentance and faith? The Bible is silent about Simon's future. But Simon is long gone from this earth. He is long dead. We must answer the guest's question, *"Who is this who even forgives sins?"* Our answer sets the path for our future.

누가복음 7:49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는가?"** 하더라". 이들 손님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예수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도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 질문에 달려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이 참이 되게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눅 5:21).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누가복음 7:48, "이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이야기는 신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이제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흐느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명백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인 시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성경은 시몬의 미래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들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가 누구이길래 죄를 사하는가?"**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줍니다.

I sometimes chat with a friend while we're walking our dogs. He likes to debate religion. And he wonders why Christians believe in original sin. But, he's asking the wrong question. The real question is, 'How can he deal with his sin?' Truly, he cannot. The Lord Jesus paid the price for our sin on the cross. The shadow of the cross falls on all of history, past present and future. The Lord Jesus asked Simon if he saw the woman. Did he see her as a forgiven sinner? The question for us is this: Have you seen Jesus? Do you really see Him as He is? Do you see Him as your Saviour and Lord? For, this woman is you. She is me. Amen

저는 개를 산책시키는 동안 가끔 친구와 담소를 나눕니다. 그는 종교에 관해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는 왜 크리스천들이 원죄를 믿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실제 질문은 "어떻게 그가 그의 죄를 다룰 수 있을까?"입니다. 진실로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은 모든 역사, 과거, 현재, 미래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가 그 여인을 보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았습니까? 우리를 위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그가 그 되심을 봅니까? 그를 여러분의 구세주이자 하나님으로 봅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입니다. 그녀는 저이기도 합니다. 아멘